

Galatians 1-2

By Chuck Smith

갈라디아서

Chapter 1

Galatia was not a city. It was a territory. It encompassed an area that is now in Turkey. There were several churches founded by Paul in Galatia. And following Paul's evangelistic efforts through the area and the founding of many churches, there were men who came in and they began to pervert the gospel that Paul had taught, the gospel of grace. And they began to preach another gospel which is not a gospel.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둘러싸인 한 지역으로 현재 터키 나라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에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가 있었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수고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Because the word gospel means good news. And if you tell me that God will forgive me all of my sins and account me righteous, if I will simply believe in Jesus Christ, that's good news. But if you tell me that I must then follow certain rules and regulations and be obedient to the law and keep the law of God in order to be righteous, that's not good news because no one's been able to do that. And so Paul is writing to the Galatians to correct this teaching that had followed his ministry in their midst and to free them again from that bondage of the law that men were seeking to put them under.

복음 (gospel) 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내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간단하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여 내가 그것을 단순히 믿으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내게 말하기를 의롭게 되려면 어떤 규칙과 규율을 따라야하고 그 법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바르게하며 그들에게 얽어매려하는 율법의 속박에서 다시 해방시키려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We in the Gentile church today have so much to be thankful for because of this man, Paul the apostle. Had it not been for his strong stubborn stand on salvation through grace, Christianity could have reverted to just another Jewish sect. But Paul made his stand in front of all of them against all of them really insisting on this gospel of grace. Salvation through faith and through the grace of God.

오늘날 이방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로 인해 감사할것이 많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굽히지 않는 강한 바울의 주장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그냥 또 다른 유대교의 한 종파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주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것입니다.

And so Galatians is a very strong treatise against any form of legality. Any attempt to become righteous by our works or more righteous through our obedience to the law and it is really setting forth in a very powerful way the gospel of grace and justification by faith. It was this epistle to the Galatians that brought on the Protestant revolution, the revolution, yes; reformation which was a revolution from the corruptive practices of the church of that day.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형태의 율법도 반대하는 매우 강력한 논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 지려 하거나 법을 순종함으로써 더 의로워 지려는 시도와 은혜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것을 아주 강력하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조교개혁을 불러 일으킨 것이 갈라디아서 였습니다. 이 개혁은 당시의 교회의 부패한 의식으로 인해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Martin Luther was much like Paul the apostle in that he was one of those fellows who went all out in his religious practices. He was one of the most monkish of all of the monks. And had gone to Rome and in order to appease God was climbing the steps on his knees, one step at a time, offering the prayers and all at each step. And as he was going up these steps the Spirit of God spoke to his heart out of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Marti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And that burned in his heart. And thus was born the Protestant reformation.

마틴 루터도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종교 의식을 빠져 나온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대단히 흡사 했습니다. 그는 수도승 중에도 골수분자 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헤드리기 위해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르며 각 계단마다 오를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쓴 바울의 편지에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This glorious epistle that has set men free and has brought men into a vita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This epistle that opens the door to all men so that I may come freely unto God because I come to God and I learn to come to God through this epistle on the basis of God's love and God's grace, not on the basis of my merit, my works, my efforts.

이 영광스러운 서신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가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서신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내 장점이나 내가 한 일이나 나의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Now these false teachers that came in,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always sought to do was to discredit Paul. This is a typical ploy of false teachers. If you have been studying and learning under a minister, a man of God, they'll come in and their first thing is to try to discredit the one that you have been studying under or the one that you were converted under. Now it seems that these false teachers never really seek to evangelize. But they're always trying to go into those who believe and change their beliefs.

이제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항상 추구하는 첫 번째 일은 바울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선생의 계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 밑에서 공부를 하거나 배우고 있다면 그들이 들어와 첫 번째 하는 일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을 개심 시킨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진정으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언제나 믿는 자를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바꾸려 합니다.

So Paul, first of all, reaffirms his apostleship and he says though that it is,

(not of men, neithe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1:1)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도 직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이지만 다른 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밋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1:1)

It is interesting how that even today, people are asking the same questions that the Pharisees asked John the Baptist while he was baptizing down at the Jordan river. They said,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do this? From whence comes your authority? When Jesus cleansed the temple, they asked Him the same question.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do this” (Mark 11:28)? Paul. People it seems are always looking for the basis of your authority. And many times today people come up, especially the Mormons, and they’ll say,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baptize? Because they teach that they are the only ones who have the right to give authority to anyone to baptize. They are the only true church because they are the only church which still has twelve apostles governing the church.

침례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똑 같은 질문을 심지어 어떻게 오늘날도 하는가를 볼때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 어디로부터 너의 권세가 왔느냐?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도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누가 이 일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마가11:28)**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신의 권세의 근거가 어디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 번 사람들이 옵니다 특별히 물문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당신에게 침례 주는 권세를 주었느냐? 그들은 자기들만 침례 줄 권세가 있는 옳은 자들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회만 아직까지도 12 사도가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And their twelve apostles are the only ones who can ordain or grant authority unto men to exercise spiritual ministries. And so their trip is always an authority trip, Who gave you the authority? And so the question of really of Paul. Well, who gave Paul the authority to be an apostle? Who laid hands on Paul? And of course, we have also within the church today what they call the apostolic succession of the laying on of hands, as far as authority goes in the high church. They ordain the men for the ministry and the bishop lays his hand upon the candidate as he ordains him and this bishop had hands laid on

him by another bishop who had hands laid on him by another bishop who had hands laid on him by another bishop who had hands laid on him and back to Peter.

그리고 그들의 12 사도만이 사람에게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할수 있는 유일한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행은 언제나 권세있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 질문이 사실 바울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바울에게 사도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바울을 안수 하였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높은 권위를 말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도 역시 오늘의 교회 안에서 안수하는 사도적 계승권 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모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임명하며 그를 임명할때 감독은 목회자 후보생을 안수하며 그 감독은 다른 감독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 감독도 또 다른 감독으로부터 안수를 받았으며 그것이 베드로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So that you have the apostolic laying on of hands. So as the bishop lays his hand upon my head and consecrates me to the ministry, I in my mind perceive this hand as it goes, b-b-b-b-b-b-back to Peter. You know, you see this sort of quick frame kind of a thing all the way back to Peter and Peter is laying his hand on me and ordaining me for the ministry, the apostolic succession of the laying on of hands. And unless you have the bishop who had a bishop who had a bishop who had a bishop, then you're not really ordained.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안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이 나를 안수하여 그 사역을 위해 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이 손이 베드로에게 까지 베드로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신속한 진행은 베드로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가 나를 안수하고 사역에 임명하는 안수의 사도적 연속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감독을 모셨던 감독을 모시며 그 감독도 그 위의 감독을 모셨고 베드로를 감독으로 모셨던 감독까지 연결된 감독을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임명 받은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Paul said, Hey, I wasn't ordained by man. I'm an apostle but "not of men, neither by man." I didn't look to man for my authority. I wasn't called by man. I wasn't ordained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에게 임명 받은 게 아니요, 나는 사도이지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니라." 나는 나의 권세를 위하여 사람을 의뢰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부름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임명 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명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So Paul's authority goes back one greater than Peter, to Jesus Christ and to God the Father. Now it is my feeling that the ordination of man is totally worthless. I'm not interested in being ordained by man. I believe that there is only one who can really ordain a man to the ministry and that is Jesus Christ. I believe that men at best can only ratify. Someone laying their hands on me isn't going to qualify me for the ministry and unfortunately,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hands had been laid upon scoundrels and they've been proclaimed by this action as ministers of Jesus Christ. But they were not and never have been. They're charlatans, they're scoundrels. Though they have the papers to show that they're ordained to the ministry.

그러므로 바울의 권위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느낌에는 사람이 임명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임명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정말 목회자로 임명 할수 있는 분은 단 한분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준하는 것뿐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안수하는 것으로 내게 목회할수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교회사를 보면 무뢰한들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그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역자가 아니었고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시다. 비록 그들은 자기들이 사역에 임명되었다는것을 보여줄 증서를 가졌을찌라도, 그들은 엉터리며 무뢰한들입니다.

It isn't what man says about me that I'm concerned with, it's what God says about me. And so Paul, an apostle, "not of men, no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합니다.

And all of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unto the churches of Galatia (1:2):

So Paul is joining those companions of his in his writing to the church.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1:2)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 교회의 그의 동료들과 연락을 합니다.

Now Paul quite often in the opening salutations of his epistles has some personal words to say but he really doesn't have much to say to the Galatians except the typical Pauline greeting of,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1:3),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의 인사말 서두에 자주 자기 개인적으로 할 말을 쓰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사도바울의 인사 외에는 할말이 많지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3)

The Greek word *grace* is a word that in its base meaning is beauty, charm. It has come to mean unmerited favor. And that is its theological kind of a definition. But there is always a beauty attached with grace. And it was the typical Greek greeting. Charis. Peace, the typical Jewish greeting, Shalom. Joined together always by Paul in his epistles,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hat he might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our Father: To who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1:4-5).

The opening salutation of Paul.

헬라어의 은혜는 아름다움, 매력 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얻은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아름다움이 은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인 헬라어 인사말로써 카리스(은혜)와 평강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항상 “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1:4-5)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Now in speaking of Jesus Christ, he declares that He “gave himself for our sins, that he might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This world is governed by Satan. Jesus called Satan the prince of this world. And referring to him said, “The prince of this world is coming, and has nothing in me” (John 14:30). When Satan tempted Christ by showing to Him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 glory of them, and promised to give them to Jesus, if He would just bow down to Satan, Satan bragged, They are mine and I can give them to whomever I will. Jesus did not dispute that. And because Satan is the god of this world, because it is under his control, being given to him by man, it is a present evil world but the purpose of Jesus Christ is to deliver you, His children,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That is God’s will to deliver you from it.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부르기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말씀 하시기를, “이후 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 할 것이 없으니”(요한 14:30) 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유혹 할 때 사단이 약속 하 기를 만약 그가 사단에게 엎드려 절만 한다면 이것들을 예수에게 주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것들은 내 것이며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사단이 말할때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그에게 준 이 세상의 신이며 이 세상이 그의 지배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악한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Now that deliverance is really twofold. When I believe in Jesus Christ, I am delivered from the hold that the world has on me. One of these days Jesus is going to deliver me out of the world. Right now He’s delivering me in the world. I have been delivered while I am here but one day He’s going to take me out of here and I will be delivered then fully from the present evil world. But now I am delivered while I am still here. It doesn’t have a hold on me any longer.

건져주심 이란 정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붙들고 있던 세상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예수께서 이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실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예수께서 세상 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께서 나를 여기로부터 데려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온전하게 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아직 이곳에 있으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붙들지 않을것입니다.

Now Paul immediately gets right into the issues.

I marvel [I'm shocked] that ye are so soon removed from him that called you into the grace of Christ unto another gospel (1:6):

They were called into the grace of Christ. They were taught salvation through faith. That it is not something you can earn, it is not something you deserve, it is not something you can purchase,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only receive as a free gift of God on the basis, not of your works, not of your efforts, not of your merit but on the basis of your simple trust in Jesus Christ. The gospel of the grace of Christ.

이제 바울은 즉각 논쟁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1:6);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을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그것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어 받는 것도 아니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의 일이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Unto another gospel:”

Which is not another (1:7);

That is, it isn't a gospel. It isn't good news.

there are those that would trouble you, and would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1:7).

There are still those today who are pervert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y again placing man under certain legal obligations or legal restraints, imposing upon man their rules, their regulations, their standards for holiness. That is not a gospel. If you give me a list of rules that I must abide by in order to be spiritual, that is not a gospel.

“다른 복음 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1:7);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1:7)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어떤 법적 의무나 법적 규제아래 두거나, 자기들의 규칙과 규정과 자기들의 거룩함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부과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지켜야 할 규칙의 항목을 준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I lived for years in a legalistic relationship with God. Trying to follow the rules, trying to follow the regulations. Signing the pledge; annually we had a pledge signing. As we committed ourselves to these rules, I will not do this and that and the other thing. And I had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that I had all kinds of problems with. Because though I had signed the pledge, many times I did not keep the pledge that I had signed. And so I felt doubly guilty.

나는 여러 해동안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로 살았습니다. 규칙과 규정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약에 서명했는데 우리는 매년 이 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규칙에 맡기며 이 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며 다른 것들도 안 하겠다는 규정을 우리들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약에 서명했지만 여러차례 내가 서명한 서약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나는 배나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Then I came into the knowledge of the grace of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rather than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I developed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And I've been happy ever since. How I love this relationship I have. Oh, you say, you then do anything you want, huh? Well, yes, I do. But I just don't want to do a lot of things anymore, you see. I really live a more strict life now in this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than I did with the legal relationship with God. You see, there's something perverse about me and about rules. I don't like rules. And if I walk by a sign that says, Don't touch, I'll touch it. Don't walk on the grass, I'll step on it. I just don't like rules.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켰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지금의 이 관계를 나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보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와 규율은 맞지않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규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이 쓰여 있는 곳을 지나 갈 때에 나는 만지지 마시오 라고 써있으면 나는 만질 것이고, 잔디 위를 걷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밟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규율을 싫어합니다.

And there's something within me that sort of rebels against rules. I like this loving relationship I have with God. And I don't walk on the grass. And I don't touch. Not because I can't, I don't want to. If it doesn't please the Father, I don't want to do it. And so this loving relationship is so far superior to the legal relationship with God. And so this gospel that they were proclaiming in that they were trying to put the people into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Paul said, is not really another gospel. It's a perversion of the gospel.

And th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1:8).

그리고 규율을 저항하는 무언가가 내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잔디 위로 걸지도 않고 만지지도 아니합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로 묶어 두려고 그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실제로 다른 복음이며 그것은 복음의 곡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1:8).

That's pretty strong language. "Let him be anathema." "If any man would preach other gospel, even if an angel of heaven would come and preach another gospel," even if Moroni would come and say, You've got to wear certain kind of underwear in order to be righteous and you must go through the temple rites and you must continue to be a faithful Mormon if you

are to be saved; you see, that's adding to the salvation through the grace of God offered to us through Jesus Christ. That's putting the burden back on you.

그건 대단히 강경한 발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몰몬의 모로나이가 와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속옷을 특별한 종류의 것으로 입어야 하며 구원을 받으려면 사원의 관습을 따라야 하고 몰몬에 계속 성실 해야 한다” 고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더 보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I asked a young man one day who came up to me and I'm sure that he had been in a Sunday school class of mine years ago and he came up to me and said, Chuck, I'm no longer a Christian. Now I'm a Mormon. Now I'm sure that he wasn't schooled enough in the Mormon techniques at that point that he would say something like that, because now they seek to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But he said, I'm a Mormon. And I said, Oh, what a shame. And he said, What do you mean? I said, I mean just what you said. I think it would be a shame if a person cease being a Christian and started being a Mormon.

오래 전에 우리주일 학교의 내 반에 다녔던 한 청년이 내게와서 말하기를 “척,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몰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가 그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몰몬의 기교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확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몰몬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는 길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나는 몰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기를 “오, 수치스럽군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 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뜻은 당신이 금방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생 각에 그리스도인이 되시는것을 중단하고 몰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치스러운 일 같습니다.”

I said, But as a Mormon, tell me, Jerry, what do you, what is the base for your hope of eternal life? And he said, My faith in Jesus Christ and continued membership in the Mormon church. I said, Well, as far as I'm concerned you went one step too far. If the basis of your hope for eternal life is your faith in Jesus Christ, I can shake hands with you and say, Great, Jerry, continue. But the moment you add anything to that, then it's another gospel. And even if an angel of heaven has declared another gospel that would add

something more than your faith in Jesus Christ as your hope for eternal life, then it is not a gospel. And so,

let them be accursed. For do I now persuade men, or God? or do I seek to please men? if I please men, I would not be the servant of Christ (1:9-10).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물론으로써 내게 말해보시오, 제리. 당신의 영생의 소망을 무엇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물론 교회에 회원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은 한 발 더 깊게 간 것 같군요. 만약 당신의 영생의 소망의 기초가 예수를 믿는 믿음 에 있다면 내가 당신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제리,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그 어떤 것을 더하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당신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예수를 믿음보다 더 보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9-10)

Paul said I'm not really seeking to win a popularity contest among men. I'm seeking to please God. And I could give up this fight. I could give in to the legalism. But if I did, I would not be a servant of God. Thank God Paul stuck by his guns. Boy, our church today would be something vastly different if Paul had not stuck by his guns.

But I certify you, brethren,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is not after man. Because I did not receive it from man, neither was I taught it,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11-12).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내가 율법에 굴복할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이 심지를 굳게 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 합니다. 휴우! 만약 바울이 심지를 굳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대단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 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1:11-12)

So this gospel of grace is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unto Paul. Now I am certain that God chose Paul and ordained Paul even as he said from his mother's womb that he should be the carrier of this gospel of grace because he was perfectly fitted by God for this task. You see, if you do not follow something to its end, then you always think, Well, my failure was not following it to its end. Had I followed it to the nth degree, then I would have found the satisfaction. And so I look at myself and I say, The failure lies in me, I didn't follow it completely enough.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가 말한대로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것과 임명하셨음 확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 적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 나의 실패는 끝이 없다” 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갔더라면 내가 만족을 했을 텐 대.” 그리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말하기를 “실패의 원인은 내게 있어, 내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 따라가질 않은 거야” 라고 말할것입니다.

It is an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I have made concerning those who are Buddhists. When a person tells me, Well, I'm a Buddhist, I usually ask them, Well, have you achieved then the perfection and that complete peace in Buddhism? And they will always respond by saying, I am working towards it. Never have I found one who has claimed to achieve. They're always working towards it. It's always this carrot out here at the end of the stick. I'm still working. I hope, you know. But I keep trying. If I work a little harder I might achieve, I might attain, I might find the peace and satisfaction. I'm working towards it.

내가 불교인들에 관해 재미있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저, 나는 불교신자예요” 라고 내게 말하면, 나는 항상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불교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평강에 도달 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도달했다는 사람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것을 향하여 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언제나 그 막대기 끝에는 이 당근이 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노력합니다. 아시다시피, 내 소망은 성취하는 것이지만 나는 계속 노력합니다. 만약 내가 일을 조금

더 힘쓰서 하면 그것을 성취 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게될것이고 평화와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Paul the apostle had followed the law of God circumspectly. He had followed it down all the way. He writes concerning himself that “as far as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is concerned, I was blameless” (Philippians 3:6). And so Paul speaks of his zeal above his own peers. His zeal for the lost, his zeal for God according to the law and all was above those around him. And yet Paul found himself zealously following the law still empty and frustrated and he did not find the fulfillment. And that is why when he came to the glorious knowledge of Jesus Christ he was so transformed because he had followed the law all the way as far as you could and didn't find the peace.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 법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꺾막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립보서 3:6).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료보다 지나친 그의 열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잃은 자들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지나쳤습니다. 바울 자신은 열심으로 율법을 따랐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좌절감을 느꼈으며 만족감을 가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랐을 때 그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자신이 할수 있는한 끝까지 따랐지만 평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Now Peter could not really be the emissary of grace because Peter had not really followed the law that circumspectly, you see. And so Peter would think, Well if I had only followed the law, I might have achieved, I might have attained, you know. And so Paul was especially prepared of God to receive this gospel of grace and it came to Paul by direct revelation of Jesus Christ. He did not learn this in the church in Jerusalem or from the apostles or those brethren there. Taught to him by direct revelation of Jesus Christ.

For ye have heard of my conversation in time past in the Jews' religion, how that beyond measur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and wasted it: And I profited in the Jews' religion above many of my equals in mine own nation, being more exceedingly zealous of the traditions of my fathers (1:13-14).

이제,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율법을 조심성있게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사자가 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 했을 겁니다. 만일 내가 오직

율법만 따라 갔다면 나도 성공 했었을 터 인데. 내가 달성했었을 텐 대.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바울에게 계시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이것을 배운 것도 아니요 또는 사도들로 부터 배운것도 아니요 또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배운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 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1:13-14)

Hey, I was at the top of the class. I went all the way. I went all out for the law and for Judaism. "Above my equals, more exceedingly zealous."

But when it pleased God, who separated me from my mother's womb, and called me by his grace, To reveal his Son in me, that I might preach him among the Gentiles; immediately I conferred not with flesh and blood (1:15-16):

여보시오, 나는 우리 반 에서 최고 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었습니다. 나는 율법과 유대교를 위해 힘을 다 했습니다. "여러 연갑자보다 더 지나치게 열심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 하지 아니하고(1:15-16)

When Paul met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and there had that complete a hundred and eighty degree turn, from persecuting Jesus to following Jesus, such a revolution, total revolution. Paul did not then look up the Christian brothers to learn all about it. But he went out into the desert and spent several years out in the deserts of Saudi Arabia just waiting upon God and receiving the revelation directly from Jesus of the gospel according to grace. So this is not Paul's gospel, this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delivered to Paul who in turn has delivered it to us. This is the truth of Christ; the salvation that is offered now unto you through your faith in Him. "I did not confer with flesh and blood."

I did not go up to Jerusalem to them which were the apostles before me; but I went into Arabia, and then I returned to Damascus (1:17).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하는 것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백팔십도 달라지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찾아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복음에 관해 예수로 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여러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스는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나는 혈육과 의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1:17)

I didn't even return to Jerusalem.

Then after three years I went up to Jerusalem (1:18)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18)

So he didn't get back to Jerusalem until about six-and-a-half, seven years after his conversion. He had gone from Jerusalem to Damascus to imprison the Christians, those that call upon God. He was met by Christ on the road so that when he got to Damascus he was a changed man. He ministered to the Christians that were there but realized that he needed to know more and went out into the deserts of Arabia and waited upon Jesus where he received the glorious revelation for three-and-a-half years; returned then to Damascus to stay there and now taught them for three years. And then finally came to Jerusalem.

to see Peter, and stayed with him for fifteen days. But of the other apostles he didn't see any of them, except James the brother of the Lord (1:18-19).

그래서 그는 회심후 약 육년 반 내지 칠년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가 다메섹에 도착 했을 때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했으며 그는 더 많이 배워야 할 필요를 깨달았기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삼 년 반 동안 받았고 그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머물면서 삼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그와 함께 십 오일을 유할새 주의 종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1:18-19).

This is the James who authored the epistle of James. This is the James who became one of the leaders in the early church. This is not James, the brother of John the fisherman. He was beheaded before Paul got there. This is James, the brother of Jesus Christ mentioned in Mark's gospel and Paul here identifies him.

Now the things which I write unto you, behold, before God, I lie not. Afterwards I came into the regions of Syria and Cilicia (1:20-21);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형제로 어부였던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목 베임을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마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며, 여기에서 바울도 그로 밝힙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1:20-21);

So Paul went from Damascus seven years after his conversion and then went on back to Tarsus where he was born and he went back to making tents.

I was unknown by face unto the churches of Judaea which were in Christ: But they only heard, That the one who had persecuted us in times past is now preaching the faith. And they glorified God in me (1:22-24).

그래서 바울은 회심 후 칠 년 뒤에 다메섹을 떠나 그가 태어났던 다소로 돌아가서 천막 짓는 일로 돌아 갔습니다.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쫓박 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1:22-24).

So Paul did not really have any close contact with the church in Jerusalem. In fact, the church in Jerusalem was a little fearful of Paul. They didn't know but what he was a KGB agent. And thus, they were really reluctant to receive Paul into fellowship. So Paul is emphasizing the fact that his gospel is not something that was passed unto him by the apostles or by any man. It was something that came to him through the direct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가까운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들은 바울을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는 KGB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바울을 성도 교제에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복음이 사도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자기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자기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Chapter 2

Then fourteen years later I went up again to Jerusalem with Barnabas, and I took Titus with me also (2:1).

So Paul no doubt had been ministering in Syria and Cilicia, the area around Tarsus, his home city, his hometown, and there had been Gentiles that he had brought to the faith of Jesus Christ, Titus being one of them. Now Barnabas, one of the brethren in the church there in Jerusalem decided to go to Tarsus because there was a work of God being accomplished in Antioch and he, there were a lot of Gentiles being saved and having heard of Paul, he decided to go get Paul to help in the church in Antioch. And so he went to Tarsus, searched out Paul and invited Paul to come back and to become a minister there at Antioch.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2:1).

바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인근 지역인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한 것에는 의심할여지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디도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한 형제인 바나바는 다수로 가기로 결심 했는데 그 이유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가며 이방인들이 구원 받고 또 바울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돕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았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안디옥의 사역자가 되도록 초청 하였습니다.

And he brought Paul to Jerusalem in order to sort of mend things with the apostles, to show them the truth of Paul's faith. And he said,

I went up by revelation, and communicated unto them that gospel which I was preaching among the Gentiles, but I communicated it to them privately those that were reputation, lest by any means I should run, or had run, in vain (2:2).

그리고 그는 바울이 사도들과 유대 관계를 갖게 하고 바울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게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재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 하는 것이나 달음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2)

In other words, he didn't really proclaim it openly to the church in Jerusalem because the church in Jerusalem was made up of a lot of former Pharisees and a lot of Jews who were still following the traditions of the law and who were still very observant in many aspects to the law. Jews who believed still that you could not be a Christian if you were a Gentile. Jews that still held to the fact that the only way you could be saved was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then keeping the law of Moses and being circumcised. That was the basic mindset of the church in Jerusalem. And so Paul communicated in private to the apostles the gospel that he had been preaching, this gospel of grace.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드러 내어 놓고 선언 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전에 바리세인이었던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과 여러 면으로 율법을 엄수하는 많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사실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의 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본적으로 가진 고정관념 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던 이 은혜의 복음을 사사로이 대화 하였습니다.

But Titus, who was with me, being a Greek, was not compelled to be circumcised (2:3):

They tried to encourage it and all but Paul withstood it. For their teaching was, Hey, you've got to be circumcised in order to be saved. And so Titus was not compelled as Paul withstood them.

That because of false brethren unawares who were brought in, who came in privily to spy out our liberty which we have in Christ Jesus, that they might bring us into bondage: To whom we gave place by subjection, no, not for a minute; that the truth of the gospel might continue with you (2:4-5).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2:3)

그들은 그것을 격려하려고 하였고 모두가 그랬지만 바울은 그것을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저항함에 따라 디도는 강요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 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잠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저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2:4-5).

So Paul was standing for you Gentiles. Paul was standing up for the gospel that has been proclaimed to you. That you don't have to become a Jew. That you don't have to keep the law of Moses. All you have to do i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you shall be saved" (Acts 16:31). Put your trust in Him and God will do His work in your life and transform you by the power of the Spirit and what you can't do for yourself, God will do for you. Salvation is God's gift through your faith in Jesus.

And so Paul had this conflict but he would not give in. He would not surrender to the pressures of the apostles there in Jerusalem, not for a moment.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하여 굳게 섰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오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 하실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투쟁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압력에 그는 일시라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But of these who seemed to be somewhat (2:6),

I like this. Paul's a tough cookie. It's interesting to me how that so quickly we can lose sight of the teaching of Jesus. Jesus said, “If any man would be chief among you, let him become the servant of all” (Mark 10:44). And Jesus taught His disciples that the true ministry was one of servanthood. He took the towel. He washed their feet, taking the place of a servant among them. And He said, Now do you see what I've done? Go and do likewise. “Happy are you if you do these things.” That is, if you'll take the place of a servant. “If I, being your Lord, have served you, then you ought to serve one another” (John 13:14-17).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2:6)

나는 이 바울의 강한 바위 같음을 좋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잃어 버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4).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진정한 사역은 종이 되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수건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종의 위치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한 이 일을 보았느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은 만일 당신이 종의 자리를 택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너의 주 이면서도 너를 섬겼으면 너도 서로 섬겨야 하느니라 (요한복음 13:14-17).

But always in the church it seems that we develop some kind of a hierarchy. We develop this little circle of, of leadership where we begin to stand in awe of men. Oh, you know, look. And it is so easy to become a prey to this and think, Ho-ho-ho, I am something, you know. I am somebody. And you begin then to insulate yourself from people. And you soon lose contact with people and you soon lose contact with reality.

그러나 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계급 조직을 발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서기 시작하는 작은 모임의 지도층을 발전시킵니다. 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것에 미끼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오 호호,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을 격리하기 시작할 것이며 얼마 후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잃고 그리고 또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There is one servant of God that I highly admire. I think he's been used of God perhaps in a greater measure than almost any man living today. And when I met him, I was totally taken back by the simple, beautiful attitude of this man. And that's Billy Graham. He is the most unassuming person. All God has used him, you know, and people, oh, Billy Graham, you know, and I was that way. I would say, Oh, Billy Graham, you know and Billy Graham, you know and, and I was just, you know, just so in awe of him. And then he started talking with me and I became just totally wiped out with the beautiful openness and touchability of this man.

제가 매우 존경하는 하나님의 한 종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광범위 하게 그를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났을 땐 그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 분 의 자세에 나는 정말로 놀랐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그는 제일 겸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일에 사용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오오, 빌리 그레함! 하였고 나 역시 그러 했습니다. 오, 오 빌리 그레함! 참으로 경외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말씀 나누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열려있는 그의 마음과 나에게 와 닿는 그분의 능력에 난 나의 모든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One of our fellows who is a flight attendant for Western Airlines had Billy on his plane the other day. And so he said to him, When you're through with your duties why don't you come back and sit and talk? And so he sat down and was talking with Billy for about an hour on the plane and Billy says, Well, give me your phone number. Next time I'm out in California I'll give you

a call. Maybe we can get together. With a flight attendant on Western Airlines! But that's the kind of a man he is. It's beautiful. No wonder God has used that man so mightily. No wonder God has been able to continue to use him through the years, because he has caught what it is to be a servant of God and not really placed himself in in this position of you know grandiose superiority over others.

웨스턴 항공 회사에 여객기 승무원으로 일하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의 비행기에 타셨답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일이 끝나면 여기 앉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빌리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약 한 시간쯤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당신의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다음 번에 내가 캘리포니아에 가면 당신한테 전화를 할게요. 아마 우리가 만날 수 있을것입니다. 웨스턴 항공사 여객기 승무원과 만난다구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것은 의심할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쓰실 수 있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Now as, here was this little, you know, little group in Jerusalem. They had set themselves up and you know, they're establishing themselves and Paul says of them, "But of those who seem to be somewhat,"

(whatever they were, it makes no matter to me: for God doesn't accept any man's persons:)(2:6)

이제 예루살렘에 이 작은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유명하다는 이 들중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 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 하시나니;(2:6)

Years ago when I was disenchanted with the particular denomination in which I was serving, I started looking around to other denominations. I was hoping to find the perfect denomination. I was going to corrupt it by joining it. And so I went before the bishops and before the presbyteries and before the leaders of other denominations because the thing that I didn't like in the denominationalis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spiritual hierarchy which

created a political back-scratching kind of a mode, you know, getting up the line and getting in the positions of power and then, you know, there you sit in your chair, your pompous attitude, and the whole thing. And I didn't see that in true Christianity and I was, and I was looking for more of a fellowship where, Hey, you know, we all put our pants on one leg at a time, you know, no different from each other really. And so I went before many of these august bodies of leaders. You know, just their glasses and they sit there in their chairs and they, you know, scowl at you and, and, and gave you the whole, you know, they try to intimidate you. And that's the whole game, intimidation.

몇 년 전 내가 봉사했던 어떤 교파에서 매력을 상실 했을 때 나는 다른 교파를 찾기 시작 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교파를 찾기를 소망 했습니다. 나는 그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그교단을 부패하게 만들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교파들의 감독들 앞에도 갔었고, 장로회에도 갔었고, 그리고 다른 교파의 지도자들 에게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파주의에서 내가 싫어한 것은 교파 안에 있는 영적 계급제도 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퇴폐를 일으켰던 조직이요,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줄지어 섰다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앉으면 거만한 자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런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다리씩 차례대로 바지에 끼어 입듯이 정말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는 그런 성도 교제를 더욱더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많은 존엄한 조직체의 지도자들의 앞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안경 너머로 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협박하는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They tried to intimidate Paul. Intimidate him into having Titus circumcised and you know, and having Paul backed down. "But of these who seemed to be somewhat, (whatsoever they are, it doesn't matter to me: for God accepts no man's person:)" God doesn't stand in awe of these men. God is not intimidated by them. But "the nations are as dust in the balances" in his eyes, how much less man (Isaiah 40:15).

그들은 바울을 협박 하려고 했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주도록 그를 협박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바울로 하여금 물러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들을 두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협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열방은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그의 눈에 사람은 얼마나 더 작은 (이사야 40:15) 것이겠습니까.

Now that's an interesting little scripture, "The nations are as dust in the balances." Many times a merchant, of course, the balances were, you know, you buy your goods, you buy them by the weights and so they had the shekel weights that they would place on the balances. They had the balanced scales. But a merchant would try to show you how honest he really was. So he would blow the dust off of the scales before he would put your merchandise on it in order that you're not buying his dust. And it was a symbolic action to just show you, Hey, I'm the most honest guy around, you know. And so this dust in the balances is a picturesque thing, people could see the merchant blowing the dust off the balance before he put your merchandise on it so you'd know that you were getting a fair deal. "The nations are like dust in the balances." God can blow them away. How much less is man?

그것은 흥미로운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열방은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여러 번 장사꾼들은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무게로 사니깐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울에 올려놓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밸런스가 있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정말 진실한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시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건을 올려 놓기 전에 먼저 먼지를 불어서 날려 보내지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그들의 먼지를 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지요. 그건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이 주위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울 위의 먼지는 그림 같은 것이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장사꾼이 여러분의 물건을 올려놓기 전에 저울에서 먼지를 불어 없애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한테 공명정대한 거래를 한다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열방은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 하나님께서 불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And so God doesn't accept a man's person. God isn't intimidated by man.

for they who seemed to be somewhat in conference (2:6)

you know, those who were taking the authority and speaking the words of power and all.

they added nothing to me (2:6):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헐박 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되는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2:6):

아시다시피, 권세를 취하고 능력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2:6):

I wasn't moved by them.

But contrariwise, when they saw that the gospel of the uncircumcision was committed unto me, and the gospel of the circumcision was committed unto Peter; (For he that wrought effectually in Peter to the apostleship of the circumcision, the same was mighty in me toward the Gentiles:) And when James, Cephas, and John [or Peter and John], who seemed to be the pillars (2:7-9),

나는 감명을 못 느꼈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또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2:7-9),

Ahh, oh Paul, I love you, man. “Who seemed to be the pillars,”

perceived the grace that was given unto me, they gave to me and Barnabas the right hands of fellowship;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and they to the circumcision (2:9).

And this is great, this is a real problem that existed in the early church and this is how it was resolved. Recognizing that we each have our ministries but they are different. God has called you to the circumcision, great, go for it, Peter. God has called me to the Gentiles, great, I'll go for it. We're dealing with different kinds of people who need a different emphasis and message.

아아, 오, 바울, 당신을 좋아합니다. “기둥과 같이 여겨집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 가게 함이라(2:9)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할례자를 위해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강조점과 다른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I do see the validity of denominations or at least the variety of churches. I do see the validity of the liturgical churches who are ministering to people who can relate to God best in a liturgical setting. I can see the purpose of emotional churches, the Pentecostal churches, for people who have to relate to God in a emotional, hyped sense. And I really rejoice that God is so gracious in reaching man at his different levels. And so God has reached me at my level. God has reached you at your level. And He seeks to reach every man at whatever level that man is.

나도 교과의 타당성과 적어도 교회의 다양성을 보고 있습니다. 전례의 예배식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의 타당성도 봅니다. 나도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적인 교회인 오순절 교회들의 목적도 볼수있습니다. 다 다른 수준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너무나도 은혜 스러운 하나님이기때문에 나는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수준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수준의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If a man's made up on an emotional base and a high pitch thing, God meets him on that level because God loves him. If a man is made up of very sedate, you know, solemn kind of a way, God meets that man at his level. So that we shouldn't put down the liturgical churches nor should we put down the Pentecostal churches. But we should recognize that God is using each to meet men at both ends of the spectrum and also those who are in between in the spectrum because God loves all men and God is no respecter of man's persons. He'll meet each of us at our level.

만약 사람이 감정적인데 기반을 두고 고조된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수준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만약 사람이 매우 조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각한(근엄한) 종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례의 예배식 교회들을 업신여겨도 안 되고 오순절 교회들을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를 우리의 수준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The only problem comes when we say we have the only level or we have the best level. You know, ours is superior to theirs. God loves us more because we relate to God in a better way. No, it's the best way for me to relate to God. But there is, for some people, they could not relate to God as I relate to God. And it's interesting there are some that say, Hey, you're too emotional; and there are others that say, You're not emotional enough. Somewhere I figure I'm relating to God in the middle of the road 'cause if they hit you from both sides, you know you got to be in the middle. They hit you from just one side, you're on the end then, you know. But when they get you from both sides, you're in the middle.

우리는 모두 같은 수준이다 또는 우리가 최고의 수준 이다라고 말할때 우리에게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 시피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교회보다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은 방법으로 교제하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은 너무 감정적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은 너무 감정이 너무 없어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도적인 견지에서 지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면 중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한쪽에서만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반대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쪽에서 여러분을 양쪽에서 공격해오면 여러분은 중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So Paul agreed to disagree. God's called you, Peter, John, James, God's called you guys to the Jews, great. But God has called me to the Gentiles. You can develop your legal relationships with God, we will develop our loving relationships with God through grace. Now Paul puts in his little barb here.

Only they would that we would remember the poor (2:10);

그래서 바울은 반대하는 것에 찬성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부르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과 율법관계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발전할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작은 선을 여기에 그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 하였으니(2:10);

In other words, they asked us for help. Now we're going to minister to the Jews but we're needing help so don't forget the poor which, Paul said,

we've always been forward in doing (2:10).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에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하니 가난한 자 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2:10).

That is, in helping the poor. Paul, you remember, many times took up offerings from the churches to give to the church in Jerusalem to help them in their poverty. So he's sort of interesting.

But when Peter was come to Antioch (2:11),

That is, the place where Paul, that was Paul's really home church in a sense. That's where Paul the base from which Paul went. The base to which Paul returned. That was his home church. "When Peter was come to Antioch,"

다시 말해서, 그는 가난한 자를 도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자를 돕기위해 교회에 전달한것을 기억 하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2:11),

그곳은 바울의 진정한 모교회 였습니다. 그곳이 바울이 떠났던 기지였습니다. 기지가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란 그의 모교회 였습니다.

I withstood him to the face, because he was at fault. For before certain of the brothers came from James,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down, he withdrew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ose which were of the circumcision. And the other Jews dissembled likewise with him; insomuch that even Barnabas was carried away with their dissimulation. But when I saw that they walked not uprightly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Peter in front of them all, If you, being a Jew, were living after the manner of the Gentiles, and not as do the Jews, why are you compelling the Gentiles to live as the Jews (2:11-14)?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 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 들을 두려워 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 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 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2:14,14).

So Peter showed a vacillation here and of course, Peter was sort of famous for vacillation. He had come down to Antioch and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Now the churches in those days had what they called the Agape feasts. It was sort of what we would call today a potluck. And usually once a week they would all get together for this Agape feast, everyone bringing a dish and then just sharing it all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And then they would finish it with communion service. And it was called the love feast, the Agape feast in the early church. And it served a great purpose because many times the poor people, this was the only decent meal they got all week. Many of the Christians were slaves, undernourished. And this was the only decent meal they had.

그래서 베드로는 우유부단함을 여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좀 우유부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안디옥으로 왔어야 했고 그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들이 사랑의 잔치 라고 부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파트락 (potluck)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상시 한 주에 한번씩 사랑의 잔치에 모두 함께 모입니다. 모두가 한가지씩 음식을 만들어와 그냥 나누어 먹는 것이지요. 그리곤 성찬식으로 그것을 끝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 사랑의 잔치 또는 사랑의 축제라고 불리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단한 목적을 띤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중에 가진 음식중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노예로서 영양 부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제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So everybody sharing all of their food, all sitting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And so Peter came down and he just sat with them and ate with them. But that's a no-no to a good Jew. For in eating together, you were becoming one with them and thus they were becoming one with the Gentile. And from a Judaistic standpoint, from an Orthodox standpoint, that was bad. But Peter, seeing the love of Christ, realizing, Hey, they're just brothers in the Lord, he just sat down with Gentiles and ate.

그래서 모두가 같이 앉아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량한 유대인들에겐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며 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관점으로나 정통파의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고 그들이 주안에서 형제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Now you remember earlier when Peter had his revelation on the housetop of Simon there in Joppa, and the sheet was let down and all kinds of unclean animals on it, the Lord said, Peter, rise, kill and eat. He said, Oh, not me, Lord, I've never eaten anything unclean. Jesus said, Don't call that unclean which I have cleansed. It happened three times. And then the Lord said, Behold at the gate there are some men who have come, go with them. Don't ask any questions.

여러분은 전에 베드로가 욕바에 있는 시몬의 지붕에서 계시를 받은 때를 기억하시지요. 하늘이 열리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모든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된 후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와 있으니 아무 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And so Peter went down at the gate and here were two men from Caesarea and they said, Our master Cornelius, a Roman centurion, had a vision and in the vision the angel told him to send us down here and to find

you and to bring you back up that you might explain to us the way of God in truth. And so Peter went with them and he came to the house of Cornelius in Caesarea.

그래서 베드로는 문으로 내려가 보니 두 사람이 가이사에서 도착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며 우리의 주인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당신을 찾아서 모시고 오라 했고 당신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길을 설명해 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갔고 그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Cornelius opened the door and said, O praise the Lord, Peter, come on in. And Peter said, Oh-oh, you know it's not lawful for me to enter your house, the house of a Gentile. But he said, God told me don't call that unclean which is cleansed. So I'll come on in, you know. Isn't that what you want to know? And so Cornelius said, Well, I was praying the other day in the afternoon about three o'clock and this angel stood here and told me to just call you and that you would tell us what we needed to know. So the ball's in your court. What do we need to know?

고넬료가 문을 열며 말하기를 오 주님을 찬양 할지어다. 베드로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 오, 내가 이방인인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인 것을 당신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시다 시피 내가 당신 집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말하기를, 전날 오후 약 세시 경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여기 서서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부르면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And so Peter started sharing with these Gentiles and a group had gathered there at Cornelius' house, group of his friends had come to hear what Peter had to say and as Peter was talking to them, the Holy Spirit fell upon them and Peter was shocked. Now these people are Gentiles. They're receiving gift of the Holy Spirit, what's going on here? And he says, Now notice fellows, I didn't do anything, you know. When we get back to Jerusalem you witness for me. I didn't do it. And he didn't want to take the responsibility and so he had the Jewish witnesses go back to Jerusalem and explain how

that he wasn't really responsible. It was something that God did because he didn't want to get in trouble. Went into the house of the Gentiles to begin with.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 고넬료의 집에 모인 무리에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은 베드로가 해야 할 말을 들으려고 왔으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동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때 당신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증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에게 정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설명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작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 간 것부터 었습니다.

Well, Peter, the Lord was beginning to break down some of these barriers. He came to Antioch, saw the beautiful fellowship, the love feast and joined in. But then certain brothers came down from Jerusalem, friends of James, and Peter knew that if they saw him eating with the Gentiles, he'd get reported on. Peter was eating with Gentiles, oh, no! you know, what's happening now? And so Peter pulled away and the next love feast, he sat along with a little group of Jews. Division in the body.

주님께서는 이 장벽들을 조금 무너뜨리기 시작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아름다운 성도 교제와 사랑의 잔치를 보았고 또 참가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친구인 어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 왔을때 베드로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 다면 그것을 보고할것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니, 아이구, 저런,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물러 나서 사랑의 잔치에서 그의 소수의 유대인 무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교회내에 분열입니다.

And the other Jews who had been eating that the church had been sort of unified, just one in Christ and experience that glorious oneness, but now this division. Peter is a part of it and because it was Peter, other Jews seeing Peter dissemble, they also dissembled and even Barnabas who had been with Paul preaching to the Gentiles, he even got swayed by this and he also changed tables. And that is when Paul stepped in and he rebuked Peter to the face in front of all of them. Said, That's not right, you came down and you began to live as a Gentile, being a Jew. And now, you're trying to compel the Gentiles to live like Jews. And he rebuked him to the face. Now he goes on to say,

그리고 함께 먹은 다른 유대 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대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 그리고 하나가되는 영광스러운 경험했으나 이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베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흠어드는 것을보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있다가 마음이 흔들려 다른 상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때 바울이 들어 왔고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견책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내려 와서 이방인 같이 살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방인을 유대인 같이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그의 면전에서 견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We who are Jews by nature, and not sinners of the Gentiles (2:15),

Now that is, we don't eat pork, we don't eat rabbit, we don't you know eat those foods that the law said were wrong, were sinful to eat, and we are not the sinners of the Gentiles.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2:15),

이제 그건, 우리는 돼지고기나 토끼도 율법에 금하는 음식을 먹으면 죄인이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의 죄인이 아닙니다.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2:16).

So Paul said, Even we who have kept the law can only be justified through faith. By the works of the law, no one can be justified. Your obedience to the law of God would not save you. Let us say that you could keep the law of God. Written and traditional, oral. It would not save you. This is one of the problems of the Jewish people today. This is exactly what they are trusting in for their salvation, their own imperfect works of the law.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6)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지라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문자로 기록되었거나 구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수 있다고 말해 봅시다. 그것도 당신을 구원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 중의 하나 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믿고 있는것이며 그것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율법의 행위입니다.

Yom Kippur is no longer a day of sacrifice for sins. It is a day of reflection for the Jew as he reflects upon his good works seeking to be justified by his works before God. But Paul said,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Justification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But if, while we seek to be justified by Christ, we ourselves are also found to be sinners, is therefore Christ the minister of sin? God forbid. For if I build again the things which I destroyed, I make myself a transgressor (2:17-18).

속죄일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희생의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선한 일로 의롭게 되려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회상하는 회상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2:17-18)

So Paul is talking here about his newfound faith and revelation that is justification, being accepted by God, was based upon his faith in Jesus Christ. And so he despaired of the works of the law seeking now that righteousness which is of faith through Christ. No longer following the traditions of the law. Eating if he so desired a ham sandwich. And he goes on to say, If I try to build again a relationship through the law, that which I destroyed when I came to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n I would become a transgressor. For through the law,

For I through the law am dead to the law, that I might live unto God (2:19).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의 새롭게 찾은 믿음 과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도는것 즉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행위로 절망했으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그가 햄 썬드 위치가 먹고 싶다면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하기를 만일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헐었던 율법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면 나는 범법자가 될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2:19).

In other words, the law condemned me to death. And that's all the law has done for anybody. It condemns them to death because no one has kept the law. And the Bible says, "If you keep the whole law, and yet you violate in one point, you're guilty of all" (James 2:10). Again the Bible says, "Cursed is the man who continueth not in the whole law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therein" (Galatians 3:10). So if you're trying to be justified by the law and you've missed in one point at one time, anytime in your life, you're under the curse of the law which is death. So Paul said the law killed me and I'm dead to the law. But I am alive unto God.

For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but yet it is not I (2:20),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것은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행한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야고보서2:10). 다시 성경이 말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 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0).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려고 시도 하다가 당신 생애의 어떤 순간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당신은 죽음이라는 율법의 저주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나를 죽였고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았노라 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20)

I'm living now a new life. My old life was predicated upon the works of the law. My old life was self-centered. My old life was filled with strife, envy, jealousy, factious spirit. No longer I. What a glorious day when our life is no longer I. No longer centered around self. But now a new center and that is Jesus Christ for my life. No longer I upon the throne. But now Jesus Christ enthroned in my heart. No longer seeking to please me, now seeking to please Jesus Christ.

The life that I now live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2:20).

지금은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은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입각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은 자기중심주의 였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당쟁을 일삼는 마음으로 팍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사람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아닐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보좌에 앉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2:20).

And so I am not the old man that I was. That man died. He was crucified with Christ. I have a new life. A new center for life. The old self-centered Chuck died, crucified with Christ. Now the God-centered Chuck lives. "Lives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that I might have this new Christ-centered life. That I might have this new relationship with God. That I might have spiritual life. Paul said,

I do not frustrat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uld come by the law, then Christ is dead in vain (2:21).

그래서 나는 과거의 그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의 삶입니다. 그 옛 자기중심 이었던 척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척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며 나는 영적인 삶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2:21).

You remember when Jesus wa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 night before the crucifixion, Jesus knelt and prayed,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Matthew 26:39). What’s He talking about? If what is possible? If the redemption of man, if salvation for man is possible by any other means, by any other agency, by any other action, let this cup pass from me. If it’s possible that man could be redeemed by the law, then Jesus would not have died. God would have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and maybe one or two might have gotten in somewhere along the line if they had died soon enough.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하신 것을 기억하실줄로 압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입니까? 만약 무엇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만약 사람의 구원, 사람의 구속이 다른 방법에 의해, 다른 어떤 매개체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조건을 성립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나 둘쯤은 어느 정도에서 도달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맞은 시기에 죽었다라면 말입니다.

The cross of Jesus Christ declares to all men for all times that there is only one way by which man can be redeemed and hope to see the kingdom of God. For had God been able to accomplish man’s salvation through any other series of works, through the establishing of certain rules and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and all, had God been able to redeem man by any other way, I am certain He would have answered the prayer of Jesus.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항상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연속적인

일이나 어떤 법과 규율과 요구조건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수 있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제하실수 있었다면, “아버지,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And the fact that Jesus went ahead and suffered at the hands of man and was crucified by man is the declaration of God to all of us that there is not a possibility for salvation through works, through the works of the law, through the efforts of man. And as Paul said, “I am not frustrating the grace of God: because if righteousness could come by the law, then Christ died in vain. His death was not necessary. But righteousness cannot come to you by the law.

예수님께서서는 앞서 가셔서 사람의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선행으로나 율법의 행위로나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2:21).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Righteousness cannot come to you by keeping rules and regulations. I cannot give to you a standard for righteousness and saying. Now if you do this and do this and do this and do this, you will be righteous. Unfortunately, many churches have endeavored to do this. They have their standards of holiness and they tell the women what kind of apparel is righteous and what kind is unrighteous. They tell what kind of jewelry you can wear and what kind you can't wear. They tell you how you can fix your hair the righteous way and the unrighteous way. Interesting they don't say too much about men who'd dress extremely flashy as a general rule within their groupings. But they really have a lot to say to the women. Of course, the men cannot wear gold. And they are trying and they really believe that they are being more righteous.

규칙이나 규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기준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 들이 이것을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으며 그들은 여성에게 어떠한 옷을 입으면 의롭고 어떤 옷을 입으면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떤 보석은 달 수 있고 어떤 보석은 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머리를 하면 의롭고 또는 안 의로운 길인지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모임 안에 있는 남자들 중에 빼어나게 번쩍 이게 입은 남자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하여는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물론 남자는 금으로 장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하면 더 의로워 진다고 믿습니다.

They look upon me and they say, Oh, look at that, you see that he has a gold watch on, and a gold ring. Oh-ho-ho, my, shameful, that man's, you know, how can he be a minister, how can he claim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ars a gold ring. Terrible. And they stand in judgment of me because I wear a gold ring.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아하, 저것 좀봐, 그 사람이 금시계를 갖고 금반지를 낀것을 봐. 아 -하, 창피하다. 저 사람이 한것 좀봐. 어떻게 그 사람을 목사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 할 수 있단 말인가? 금반지를 끼다니, 형편없어. 그들은 서서 내가 금반지를 끼었다고 나를 판단합니다.

Now if I take this ring off and I suddenly become righteous because I've taken my ring off and my watch off, now I'm standing here, I'm very righteous, you see. You ladies can become righteous by just washing your face. I mean, you know, according to their standards. If you wear make-up, that's unrighteous. No make-up, that's righteous.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반지를 빼고 시계를 벗어면 나는 갑자기 의로워 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지와 시계를 빼고 여기에 서 있으면 내가 매우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성도 들은 그냥 얼굴만 씻어도 의로워 질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은 저들의 기준에 의해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을 했다면 그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하면 그건 의로운 것입니다.

And so they set out these standards and thus I say, He-hey, I don't wear my gold ring anymore, I don't wear my gold watch and I had the dentist pull out my gold teeth and I'm very righteous now. No, that doesn't make me any more righteous nor does the wearing of it make me any less righteous.

그래서 그들은 이 기준을 만들었고 내가 말하기를, 어이, 난 금 반지를 더 이상 안 집니다. 내 금시계도 안 끼고 치과의사한테 내 금 이빨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대단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더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그것들을 낚다고 해서 나를 덜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Righteousness is not a thing of wearing gold or not wearing gold, of eating meat or not eating meat, of eating ham or not eating ham. Righteousness is something that God had imputed to my account through grace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And God looks at me and He sees me in Christ. And He sees me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nd because He sees me only in Christ, and that is my standing before God, it is, I stand before God in Christ Jesus. So He really looks not at me but He looks at Christ Jesus and He says, Hmm, that Chuck is a righteous man. I'd say, Thanks, Jesus. I appreciate that. I love your grace, O Lord. For it is through the grace of God that I have been accounted righteous before God.

의로움은 금을 끼고 안 끼고 에 있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며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오직 그리스도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쳐다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흐음, 저 착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 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좋아합니다 오, 주님” 이라고 할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Now had I not been able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I was trying, believe me, and I was very self-righteous. I was very self-righteous because I had never been to a show in all of my life. I had never been to a, Well, I did go to one dance and that was terrible. I lived in guilt for years after that thing. Oh what a terrible. Problem was I enjoyed it and that was, oh, that was terrible. I was really guilty. But I never smoked. I had never taken a drink. And so I felt very, very righteous except for that one dance.

나는 열심히 노력 했으며 스스로 매우 의롭다고 여겼지만 나는 의롭다고 인정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전혀 연극이나 영화를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매우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 한번 춤추러 간 적이 있는데 곤혹스러웠으며 그 외에는 전혀 구경이라곤 간적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한 몇 년

동안 가책 속에 살았습니다. 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즐겼는데 바로 그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담배는 피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은 그 단 한 번의 춤추러 간것만 빼고는 매우 의롭게 살았습니다.

Now I still never smoke. I still never drank but that doesn't make me righteous and I don't look upon that. I'm not really smug and self-righteous over that. So what? That's not what makes me righteous. God accounts me righteous because I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basis of my standing before God. That's what Paul came to. He had tried the righteous act. He had tried the righteousness by the law. He had followed it as far as anybody could follow it. But when he came to the glorious knowledge of Jesus Christ, he gladly turned to the new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through faith.

지금도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술을 마셔 본적이 없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것은 아니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따를수 있는 처대한의 노력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달았을 때에 그는 기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로 돌아 섰습니다.

And so he now defends the Gentile believers in the face of all of the pressure from that leadership in Jerusalem and tells them, Stand fast in the liberty wherein Christ has set you free. Don't let men entangle you again in the bondage of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Just enjoy your loving relationship with Him.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이방인 신도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였으니 그 자유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다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로 얽어 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God loves me, that's what counts. God has forgiven my sins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That's what counts. God accounts me righteous tonight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not because of what I do or don't do but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God has accounted me righteous. The righteousness whereby I stand before God is complete. I can't add anything to it. And my endeavor to add anything to it only takes away from it because it then has me looking back at myself instead of looking at Jesus. And each time I look at myself I get in trouble. When I keep my eyes on Jesus I do alright. Keep your eyes on Him. Enjoy the grace of God. And that righteous standing that God has given to you through faith.

하나님은 나를 사랑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는 그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더 보탤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는 나의 노력은 오직 거기서 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때마다 문제 안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눈을 예수님께 맞추면 나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그 지속적인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십시오.

Father, we thank You tonight for this glorious gospel that we have received, the gospel of the grace of Jesus Christ. Thank You, Father, for revealing this to Paul and for Paul's steadfast faithfulness in passing it on to us. That we, Lord, of the Gentiles might have this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having been forgiven all of our sins, having been accounted righteous through our faith in Jesus. Bless us now, help us now.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 합니다. 아버지,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과 우리에게 내려준 바울의 굳건한 신실함을 인해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